

돈 내지 맙 시다!

WE CAN'T PAY?

WE WON'T PAY?



2002년 12월 14일(토), 15일(일) 저녁7시 속초문화회관

주최: 속초예총 · 속초연극협회 / 주관: 극단 '굴렁쇠' / 후원: 문화관광부 · 강원문화재단

전국연극제 대상에 빛나는 향토극단 굴렁쇠의 2002 마감작품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다리오 · 포의 대표작

격려사

지나온 시간들을 더듬어 보는 한해의 끝 자락에 서노라면 감사의 내용들이 참으로 많아진다. 10여 년 전, 낭만의 도시 속초에 꿈의 이야기들을 가득 담고 입성(?)한 꼭두극단 굴렁쇠가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 속에 심어준 감동과 자랑들은 가히 감사의 이유이기에 너무나 충분하다. 더욱이 올해 전국 연극제에서 큰 쾌거를(단체 은상, 남자 연기상) 가졌음에도 그 여운이 다 식기도 전, “다리오 포(돈 내지 맙시다 작가)”와의 만남을 다시 시작함에 아련한 기억 하나가 피어오른다. 10여 년 전, 속초로 귀향한 김귀선 굴렁쇠 대표가 우리와 합류하면서 첫 기대를 가지고 두 달 여 동안 정열을 쏟아내었던 작품도 “다리오 포”의 “돈 내지 맙시다”였다. 그 애씀만큼이나 단기간 중에 그렇게 많은 숫자의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안겨준 작품은 아직 없었던 그 “돈 내지 맙시다”를 올해 송년에 다시 무대를 준비한다함에 그 시절의 힘겨움들이 그리움으로 다시 찾아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연극협회 속초지부장
박 영 미

그러나 이제는 새 얼굴들이 선사하는 신선한 감동을, 그리움과 함께 객석에 앉아 넉넉한 가슴으로 즐기고 싶어진다. 추위도 아랑곳 않고 자정을 넘은 시간까지 작품에 혼신을 쏟는 그 열정의 무대를 기대하며 일상의 노래 같은 연극, 그곳에 동참한 여러 동료들에게 정다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속초의 자랑, 굴렁쇠가 있음에, 또한 그곳에서 기뻐 뛰는 단원들이 뜨거운 가슴이 있음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또 하나의 감사의 이유임을 고백케 한다.

저들을 사랑하며 한층 피어나는 다정한 마음의 꽃 한 묶음 보낸다.

2002. 12. 14

연출의 글

또 한해가 저물어간다.

뒤돌아보면 부단히도 뭘 열심히 쫓은것은 같은데 정작 돌아보면 두 개의 작품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지겨울 정도로 한 작품(아카시아 흰꽃은 바람에 날리고)에 매달리고 또 한 작품은(돈 내지 맙시다)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순식간에 해치워 버렸다.

내 이 괴팍스런 리듬에 같이 동참하는 선배님·후배님들께 그저 미안할 따름이다.

두 작품 다 열심히는 한 것 같은데 정작 머리속에 잡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선생님이 그랬다. 연극은 그저 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사이에서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붓고 부족하면 반성하고 다음 작품에 기대를 또 걸고 뭐 그러고 남는 것은 그저 세월 지난 다음에 팜플렛 정도가 아니겠냐고 하지만 열정이 지금보다 더 있을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연극이야말로 나의 신앙이고 나의 목숨이고 그러기에 이 한몸 부서져라 부딪치며 안 되면 될 때까지 악을 써가며 뒹굴어가며 표현해 내야된다는 것을, 그 극작가의 숨결마저 느껴가며 작가의 이야기를 무대 밖으로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을, 그러한 후 극장을 찾은 우리의 극동지들이 눈물과 감동을 머금은 가슴과 눈빛으로 분장실을 찾아와 주길 바라야 한다고, 그래야 연극인, 연극배우로서 이 시대를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이젠 연극환경에 지쳐가며 선생님이 하신 말씀 정도로 표현하고 말아야 할 것인가하는 생각이 든다. 아,,,아... 힘을 주소서.

이 작품은 서울예전을 졸업하고 극단<현대예술>에서 활동 중일 때 참 신나게 봤던 작품이다. 90년도 속초에서 극단<파·람·불>로 올랐고 열두해가 지난 지금 <굴렁쇠> 이름으로, 또 그렇게 말고 싶었던 경찰역을 맡아 무대에 올려본다.

속 후련한 작품이다. 뒤집어지는 작품이다.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작업에 동참한 선배님·후배님 그리고 제작비를 지원해 주신 속초시와 강원문화재단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자~ 그리고 극장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2003년, 행복한 새해 되십시오!!



극단 굴렁쇠 대표
김 귀 선

2002. 12. 14

작가 소개



다리오 · 포

- 1926년 : 스위스 국경에 가까운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주 작은 마을 산 지아노(San Giano)에서 철도원인 아버지와 농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
- 1940년 : 밀라노의 브레라 아카데미에서 미술 공부, 그후 기능대학 건축미술학교로 편입하여 학사과정을 마침.
- 1945~51년 : 무대 미술과 장치에 몰두하며, 밀라노의 동료 학생그룹을 위해 풍자춘극이나 약간 환상적인 독백 등을 즉흥 제작. 포에게 다양한 뮤지컬 배우의 길을 열어준, 당시 이탈리아의 인기 배우 프랑코 파렌티와 만남.
- 1952년 : 18주 동안 시리즈로 방송된 라디오 모놀로그 <불쌍한 난장이> 집필.
- 1953~54년 : 프랑코 파렌티와 작가겸 연출가인 기스티노 듀리노와의 공동작업으로 자극적인 사회풍자, 직접적인 시사문제를 취급하는 공연으로 비평가들의 격렬한 호응과 반발이 야기됨.
- 1954년 : 포의 작품의 주연을 맡았고, 공동작업의 동료로 발전한 여배우 프랑카 라메와 결혼.
- 1955~57년 : 19세기 코메디아 델 아르테의 스타일로 짧은 단막희극 2편을 집필, 제작, 연출 및 출연.
- 1959년 : 다리오 포-프랑카 라메 극단 창립
- 1958~68년 : 일반 상업극장에서 서민들을 상대로 공연하며 인기절정의 시대를 누림. 당시 이탈리아 정치적 상황을 직선적인 비평과 사회 풍자로 묘사하고, 다양한 스타일과 해학적 테크닉을 구사하는 7개의 작품이 제작됨.
- 1962년 : 국영방송인 RAI-TV의 인기프로 'Canzonis Ima' 에 아내와 같이 집필, 연출, 출연하였으나 정치풍자 부분의 검열 저촉으로 RAI-TV와 결별.
- 1966년 : 이탈리아 민속문화와 민요를 기초로 한 작품 <Cinagione Canto> 연출. 노동자 층에서 선발한 배우와 가수들로 성공.
- 1968년 : 서부 유럽의 정치 소요사태와 월남전에 대한 항의로 상업극장 스타일 탈피 결심.
- 1968~70년 : Nuova Scena 탈퇴, 자비로 운영하는 새 극단 창단.
- 1973년 : 파시스트 그룹에 의해 아내가 유괴되고 폭행당한 사건 발생.
- 1974년 : 밀라노 중앙에 있는 폐허 건물을 입수, 공연장으로 사용.
- 1970~74년 : 수 차례의 해외공연.
- 1977년 : 그의 작품들이 개작되어 TV로 방영되고, 그 중 <Mistero Buffo>는 교회와 기민당의 신랄한 논쟁을 가시시켰음. 노벨상 후보자로 지명됨. <교회, 가정, 침대(it's all Church, Home and Bed)>를 아내와 공동 연출.
- 1978년 : <Comic Mystery>로 베를린 세계연극제에 참가 스트라빈스키의 <어느 병사의 이야기> 연출.
- 1978~80년 : <History of Tiger and Other Stories>의 이태리 국내 및 독일, 스웨덴, 덴마크 공연으로 전 세계에 작품이 소개됨.
- 1982년 : 포와 라메의 세 가지 모놀로그 <One Woman Plays>가 영국 국립극장에서 공연되고 영국에서 인기가 급상승됨.

작품 소개

이극은 이탈리아 경제공황을 시사화시켜 서민들의 애환을 코메디로 극대화한 소극에 가까운 작품이다. 다양한 계층의 소시민들이 등장하여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 등을 일러주고 그들의 삶과 애환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희극의 요소를 최대한으로 부각시켜 올바른 서민들의 삶을 관객들과 다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탈리아 한 도시에 경제 공황으로 인해 슈퍼마켓이 텅리고 많은 시민들이 돈을 내지 않고 식품들을 집으로 가져온다. 급기야는 경찰들이 가택 수색을 시행하고 다급해진 부인네들은 임신부로 가장하여 식품들을 뱃속에 숨긴다.

처음에는 그러한 행동들을 반대하던 남편들이 왜 그러한 행동들을 해야 하는가를 이해하고 돕기 시작한다.

경찰과의 숨박꼭질은 계속되고 이 와중에 웃지 못할 일들이 펼쳐지며 이 조그마한 사건들이 경찰이 임신부로 바꾸어지는 사태로 발전된다.

노벨 문학상의 다리오 포의 대표적인 사회 풍자극으로 인간으로 태어나 어떠한 삶이 올바른 삶인가를 가르쳐 주는 수작(秀作)으로 평가 되어지는 작품이다.



CAST



안토니아 · 윤영은



마거리타 · 김영주



쥘반니 · 김태영



루이지 · 남호섬



경사, 경남장 의사 · 김귀선



노인, 경찰 · 김영식

STEFF



기획, 제작 · 장규호



음악 · 남상진



소품 및 소도구 · 김혜진



진행 · 김진우

조명 · 윤종국

무대장치 · 극단 '쿨링외'

극단 '굴렁쇠' 연혁 및 공연실적

1990. 7	꼭두극단으로 창단
1990. ~ 91. 6	햇님달님 외 6편 공연(아동극)
1992. 11	성인극단으로 전환
	'하나님 비상이예요' 박재서 작 / 김귀선 연출
1993. 5	'새장과 화장실' 최재도 작 / 김귀선 연출
1993. 9	'위기의 여자' 보뵈트 작 / 김귀선 연출
1994. 12	'약장사' 오태석 / 장규호 연출
1995. 4	'돼지와 오토바이' 이만희 작 / 김인환 연출
1995. 10	극단 굴렁쇠 제1기 work shop 실시
1996. 4	'그대여 또다시 바다로 가거든'
	최재도 작 / 장규호 연출
1996. 10	'서툰사람들' 장진 작 / 장규호 연출
1996. 12	'허탕' 장진 작 / 장규호 연출
1997. 5	'불쫓 껴 주세요' 이만희 작 / 장규호 연출
1997. 11	'피고지고 피고지고' 이만희 작 / 장규호 연출
1998. 5	'피고지고 피고지고'
1998. 7	'피고지고 피고지고'
	- 제15회 강원연극제 참가 (원주시)
1998. 11	'호적등본' 이만희 작 / 장규호 연출
1998. 12	극단 굴렁쇠 제2기 work shop 실시
1999. 4	'작은 할머니' 엄인희 작 / 김귀선 연출
	(16회 강원연극제 참가 : 속초)
1999. 12	'도덕적 도둑' 다라오 포 작 / 박영미 연출
2000. 2	극단 굴렁쇠 제3기 work shop 실시
2000. 4	'돼지비계' 오태영 작 / 김귀선 연출
	(17회 강원연극제 참가 : 춘천)
2000. 6	'돼지비계' 오태영 작 / 김귀선 연출
	(18회 전국연극제 참가 : 울산)
2000. 11	'용띠개띠' 이만희 작 / 김귀선 연출
2001. 4	'용띠개띠' 이만희 작 / 김귀선 연출
	(18회 강원연극제 참가 : 원주)
2001. 11	'아카시아 흰꽃은 바람에 날리고'
	이근삼 작 / 김귀선 연출
2002. 8	'아카시아 흰꽃은 바람에 날리고'
	이근삼 작 / 김귀선 연출
	(19회 강원연극제 참가 : 평창)
2002. 10	'아카시아 흰꽃은 바람에 날리고'
	이근삼 작 / 김귀선 연출
	(20회 전국연극제 참가 : 전주)

극단 '굴렁쇠'

연극작업에 동참코저 하는 분을 모십니다.

☎(033)631-8070 / 017-371-8070